

약침 관련 국내 연구 동향분석

윤정민¹⁾ · 김경한^{2)*} · 오용택³⁾ · 김종욱⁴⁾ · 육태한⁴⁾

¹⁾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²⁾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³⁾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⁴⁾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The Analysis of the Recent Research Trend of Pharmacopuncture

Jung Min Yun¹⁾, Kyeong Han Kim^{2)*}, Yong Taek Oh³⁾, Jong Uk Kim⁴⁾ & Tae-han Yook⁴⁾

¹⁾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³⁾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⁴⁾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on the research trends of Pharmacopuncture in Korea.

Methods : We searched Korean research database by using keyword 'Pharmacopuncture', 'Bee venom'. Korean research databases wer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RISS), 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NDSL) and Korean Medicine Information System(OASIS). We classified articles identified by publish year, type of research and diseases.

Results : We analyzed 533 studies, Clinical studies and non-clinical studies except literature studies were decreased from 2015. However, Literature studies had not shown particular change over the past decade. Pharmacopuncture treated disease was classified by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KCD), M-code (37.8%), G-code(18.4%) were frequently used.

Conclusions : A variety of disease was treated by pharmacopunctu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evidence of pharmacopuncture, through additional studies in the future.

Key words : pharmacopuncture, research trends, Korean journals,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 서론

약침요법은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이 결합된 신침(新鍼)요법의 일종으로서, 한의학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한의의료기술이다¹⁾. 이는 한의사가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을 종합적으로 변증하여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체표 반응지점이나 경혈점에 약물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는데, 이때 약물은 특정 한약에서 정제하여 추출한 것으로 한다¹⁾. 결국, 약침요법은 경락론을 기본으로 하는 침구요법과 기미론을 기본으로 하는 약물요법이 종합적으로 활용된 치료방법이다¹⁾.

• 접수 : 2018년 8월 8일 • 수정접수 : 2018년 8월 21일 • 채택 : 2018년 8월 22일

*교신저자 : 김경한, 549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 : 063-290-9031, 팩스 : 063-291-1240, 전자우편 : solip922@hanmail.net

약침요법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수천 년 한의 학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중국의 마왕퇴 한묘에서 출토 된 백서에서도 여러 치료법 중 하나로 벌이 지니고 있는 독을 추출한 뒤 환부나 경혈점에 흡수시키는 방법이 언급되고 있다¹⁾. 국내의 약침요법은 1960년대 남상천 선생의 「經絡」을 통하여 처음 소개가 되어 현재 한의약 의 주요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²⁾. 이 약침요법의 명칭은 수침요법, 경혈주사요법, 혈위주사요법, 유효점주 사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다가, 1990년 대한한의 학회의 분과학회인 대한약침학회에서 용어를 '약침요 법'으로 통일시켜 사용함으로써 명칭이 확립되었다³⁾.

최근에는 봉약침, 자하거약침, 산삼약침, 녹용약침 등 다양한 약침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다⁴⁾. 약침은 비급여 의료행위로 정확한 사용실태를 파악하 기 어렵지만, 기존 연구⁴⁾에서 2017년 기준 전체 한의 사의 67.5%가 약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 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약침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실험연구, 관찰연구, 기술연구,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 시험(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RCT)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⁵⁾⁶⁾. 특히 약침에 대한 문헌 고찰 논문은 기존에 이루어진 바 있으나 약침 전 반이 아닌 소염약침⁷⁾, 봉약침⁸⁾⁹⁾, 오통약침¹⁰⁾, 자하거 약침¹¹⁾과 같은 특정 약침에 대한 고찰이거나 무릎 골관 절염⁸⁾, 외상성 손상¹⁰⁾과 같이 특정 질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한의약 약침요법의 전반 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의 한의약 약침요법 연구를 연구방법별로 분류하여 고찰하였고, 그 중 임상연구를 제7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¹²⁾를 참고하여 질환별로 다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약침요법을 주제로 한 연구 중 국내의 학술지에 출 판하였거나 국가지식, 공공저작물로 제출된 연구를 대 상으로 문헌고찰 연구를 진행하였다. 출판 시기는 2008 년 이후부터 검색일 이전(2018년 6월)까지 출판된 증

례보고를 포함한 임상연구와 문헌연구, 동물연구를 포 함한 비임상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논문형식이 아닌 출판물의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약침요법 외에 다른 한의약 치료가 사용된 증례보고 같은 경우는 약침요법을 주요 치료로 한 연구인 경우에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2. 수집방법

검색엔진은 KIS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OASIS(Korean Medicine Infor- mation System),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을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약침요법 관련 연구 를 검색하기 위해 “약침”과 “봉침”을 사용하였고, 연구 자 2인이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한의약 관련 약침요 법을 주제로 한 연구를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된 연구 는 원문을 확보하여 해당 내용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3. 분석방법

약침요법 관련 연구 분류 기준은 연구자 내부 논의 를 통해 결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를 크게 임상연구와 비임상연구로 구분하였다. 임상연구는 증례보고와 그 외의 임상연구로 분류하였고, 비임상 연구는 문헌연구, 동물연구, 기타 비임상 연구로 분류하였다. 이 후에 연구 방법별 출판된 연도에 따른 연구를 양적으로 분석하 였고, 임상연구는 KCD-7의 22개 대분류체계(A-Z코 드)를 이용하여 질환별로 분류하였다. 임상연구 중 특 정 질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플라세보 약침, 득기(得 氣) 관련 된 연구 등 코드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질환별로 분류된 임상연구는 증례 보고와 기타 임상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타 임상 연구에는 RCT, 환자 대조군 연구(Case Control Study), 임상 케이스 시리즈 연구(Case series study)가 포함 되었다.

4. 검색결과

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총 2,745 개의 국내 연구가 검색되었다. 중복된 연구를 제거하고

추출된 1,227개의 연구 중 2008년 이전의 연구 총 661편과 초록을 검토하였을 때 논문 형식이 아니거나 연구 내용의 주제가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은 연구 총 33편을 제외시켰다. 본 연구대상에 부합하는 533개의 연구를 연구방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Figure 1).

III. 결과

1. 출판연도별 분석

총 533편의 연구 중에서 비임상연구는 292편(54.8%), 임상연구는 241편(45.2%)이었다. 전체적인 약침연구는 2011년 67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출판되었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편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임상연구가 가장 많이 출판된 연도는 2010년이었으며 임상연구는 2011년에 가장 많이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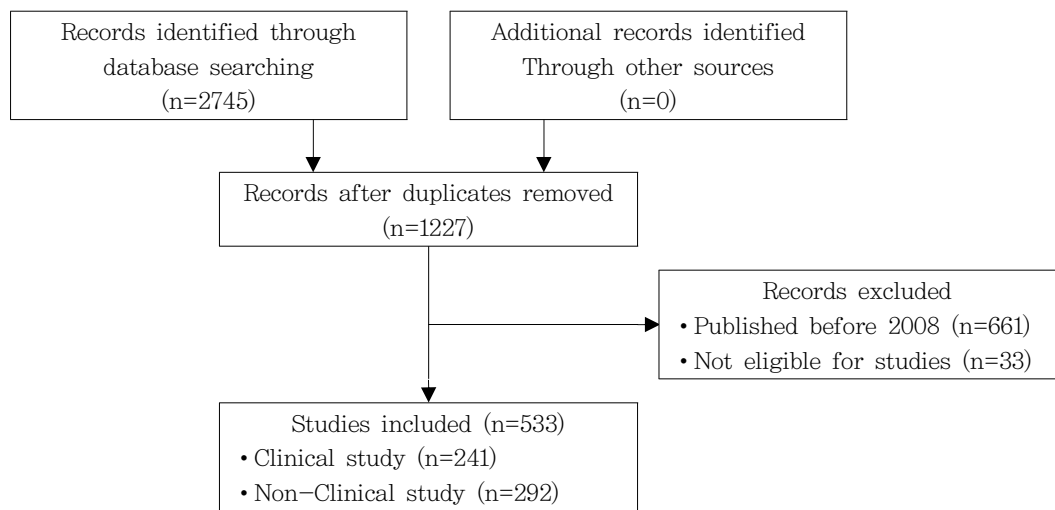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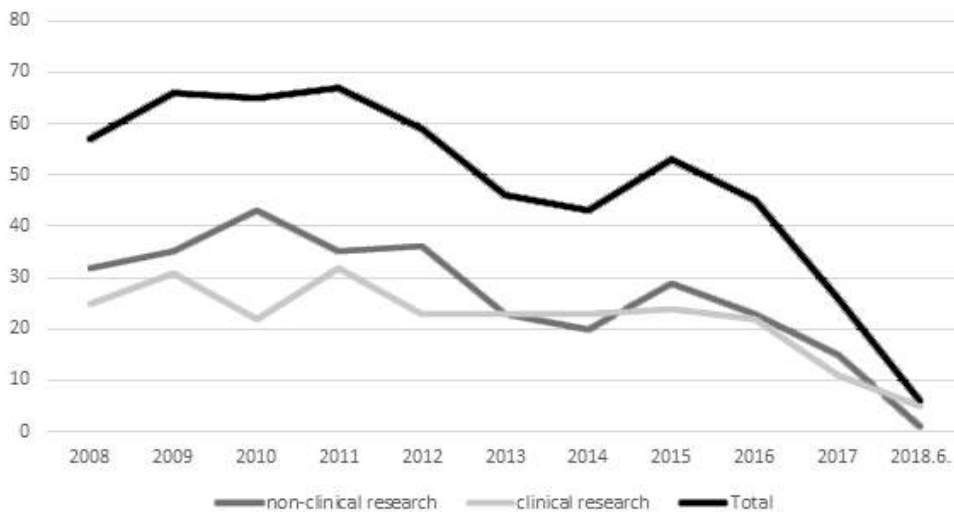


Figure 2. Publication number of classified studies by year

Table 1. Publication number of classified studies by year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Total	57	66	65	67	59	46	43	53	45	26	6
non-clinical research											
subtotal	32	35	43	35	36	23	20	29	23	15	1
Literature Studies	1	6	4	7	5	3	4	3	6	8	0
Animal Studies	25	28	30	18	22	13	11	18	12	6	1
Other studies	6	1	9	10	9	7	5	8	5	1	0
clinical research											
subtotal	25	31	22	32	23	23	23	24	22	11	5
case report	10	17	13	13	12	16	17	18	20	10	4
Other studies	15	14	9	19	11	7	6	6	2	1	1

2. 질환별 임상연구 분석

241편의 임상연구를 KCD-7의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M(101편, 37.8%), G(49편, 18.4%), I(17편, 6.4%), L(17편, 6.4%) 코드 순서로 나타났다. M 코드에서의 주요 질환은 척주관 협착증, 추간판 질환,

요통, 견비통, 슬관절염, 경항통, 전신통, 기타 척추질환,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슬부 이하의 족부질환, 주부 이하의 수부질환이었고, G코드는 불면증, 시간신경증, 중풍, 긴장성 두통, 신경마비 및 손상이었다 (Table 2).

Table 2. Classification of Clinical studies by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KCD-7)

KCD-7 Code	Disease	Study type	Contents	Count	
B	대상포진	증례보고	대상포진, 대상포진성 구안와사	2	4 (1.5%)
		기타 임상연구	대상포진	1	
	A형 간염 [†]	증례보고	급성 바이러스성 A형 간염	1	
E	비만	증례보고	산삼비만약침, 영지약침 등이 복부비만에 미치는 영향	4	7 (2.6%)
		기타 임상연구	마황천오약침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1	
	당뇨병 [†]	증례보고	침 및 봉독약침으로 호전된 당뇨병성 족부병변	1	
	기타 [†]	증례보고	산삼약침의 간 기능 개선효과	1	
G	불면	증례보고	CM약침을 이용한 불면 개선	1	49 (18.4%)
		기타 임상연구	섬수(蟾酥)약침, 삼기활력약침을 이용한 불면 개선	2	
	시간신경증 [†]	증례보고	시간신경증에 대한 봉약침 치료 효과	1	
	중풍	증례보고	주목약침, 천수(脣愈) 약침, 자하거약침 치료를 이용한 중풍 및 후유증 치료	3	
		기타 임상연구	황련해독탕 약침, 봉약침, 자하거약침을 이용한 중풍, 견비통, 사지 경직 등 치료	7	
	두통(긴장성) [†]	증례보고	면역약침을 이용한 긴장성 두통 치료	1	
	신경마비 및 손상	증례보고	신경근손상, 삼차신경질환, 상완신경총 손상, 안면신경마비, 좌골신경통, 요골신경질환, 마미증후군, 동안신경마비,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수근관 증후군, 신경병증, 다발성 경화증	15	
기타 임상연구			19		
H	이후통	증례보고	우황(牛黃), 웅담(熊膽), 사향(麝香)약침, 봉약침을 이용하여 구안와사를 동반한 이후통 치료	2	6 (2.2%)
		기타 임상연구	소염약침, BUM 약침을 이용하여 구안와사를 동반한 이후통 치료	3	
	핵간 안근 마비 [†]	증례보고	특별성 양안성 핵간안근마비 치료	1	
I	혈압	기타 임상연구	도인약침(桃仁藥鍼)이 혈압에 미치는 임상적 고찰	1	17
	뇌경색 [†]	증례보고	뇌경색 후 발생한 변조증에 대한 황련해독탕약침 치료	1	6 (6.4%)

KCD-7 Code	Disease	Study type	Contents	Count	
	레이노 증후군 [†]	증례보고	봉약침 치료, 홍화약침을 이용하여 레이노 증후군 및 수근관 증후군 치료	2	
	정맥혈전증 [†]	증례보고	심부 정맥혈전증 치료	1	
	기타	증례보고 기타 임상연구	산삼약침, 녹용약침, 옹담·우황(BU)약침, 인삼약침, 산조인약침, 황인약침, 생지황약침, 산양삼약침, 홍화자약침, 봉약침, 황기 약침을 이용하여 정상인의 심박변이도(HRV), 맥파속도(PWV), 뇌혈류에 미치는 영향	12	
J	해수, 천식 [†]	증례보고	녹용약침, 자하거 침을 이용하여 해수, 천식 치료	2	5 (1.9%)
	비염 [†]	증례보고	봉약침 요법으로 치료한 알레르기 비염	1	
	폐암 [†]	증례보고	산삼약침, 산양산삼약침을 이용하여 비소세포성폐암 등 치료	2	
K	소화장애	증례보고 기타 임상연구	MOK, V를 활용한 복합 약침치료, 건칠약침을 이용한 기능성 소화장애 치료 중증 소화불량증 환자에 대해 체침요법과 자하거약침요법의 치료효과	1 2	4 (1.5%)
	대장암 [†]	증례보고	산삼약침과 FOLFIRI 항암화학요법의 병행으로 호전된 전이성 대장암 환자	1	
	색소 침착	기타 임상연구	S 약침과 P- 약침 사용 후 피부 색소 침착 변화 연구	1	
L	주름	증례보고 기타 임상연구	HN 약침과 매선침을 활용한 비순구 주름개선 산삼 약침의 피부 주름 개선 효과 연구	1 1	17 (6.4%)
	탈모증 [†]	증례보고	V 및 HA 약침제제, 봉독약침을 이용하여 남성형, 여성형 탈모 치료	3	
	욕창 [†]	증례보고	소염약침,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약침을 이용하여 욕창 치료	2	
	습진 [†]	증례보고	화폐상 습진에 한약복용과 함께 죽염약침을 적용하여 치료	1	
	건선	증례보고	생료사물탕가미방(生料四物湯加味方)과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약침으로 건선 치료	1	
	피부 과반응	기타 임상연구	봉약침으로 유발된 피부 과반응과 사상체질에 따른 요통환자의 치료효과에 대한 비교	1	
	구진성(여드름, 두드러기, 표피낭종) [†]	증례보고	황련해독탕 약침, 봉독 약침, 섬수약침 마취를 이용하여 구진성 피부병변 치료	4	
	피부염(알레르기성, 지루성) [†]	증례보고	황련해독탕 약침치료 등으로 알레르기성, 지루성 피부염 치료	2	
	M	척추관 협착증	증례보고 기타 임상연구	봉약침, 옹공약침을 이용한 척추관 협착증 치료 요추관 협착증에 대한 봉약침 병행 치료 효과	
추간판 질환(손상, 탈출증)		증례보고	소염약침, 전충약침, 봉약침, 협척혈 신바로약침, 근이완약침, 대용량 약침을 이용하여 경추, 요추 등의 추간판 질환 치료	7	
		기타 임상연구	봉약침, 신바로약침, 황련약침, 근이완약침, 소염약침을 이용하여 경추, 요추 등의 추간판 질환 치료	8	
요통		증례보고	봉독약침, 소염약침을 이용하여 요통 및 좌골대퇴인대 손상 치료	2	
		기타 임상연구	봉약침, 우황·옹담·사향약침, 신바로약침, 중성어혈-녹용 혼합약침을 이용한 요통 치료	10	
견비통		증례보고	소염약침, 신바로(3)약침, 견우(LI15) 견료(TE14) 거골(LI16) 노수(SH10)약침, 자하거약침, 봉약침, 홍화약침을 이용하여 견비통 및 극상근건염, 삼각근하 점액낭염 등 치료	16	
		기타 임상연구	중성어혈약침, 봉약침, 호도약침, 옹공약침을 이용하여 중풍 후유증으로 발생한 견비통이나 동결견, 급성 외상성 견비통 치료에 관한 연구	8	
슬관절염		증례보고	천수근약침, 전초약침, 봉약침을 이용하여 슬관절 탈구 및 손상, Osgood-Schlatter disease 치료에 관한 연구	7	
		기타 임상연구	봉약침, 구판(龜板)약침이 퇴행성 슬관절염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4	
경향통		증례보고	봉약침을 이용하여 편타성 손상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2	
		기타 임상연구	홍화약침, 황련해독탕약침, 분리정제봉약침, 근이완약침, 중성어혈약침, 소염약침, 봉독약침을 이용한 교통사고 후 경향통, 갱년기 증후군의 경향통 치료효과에 관한 연구	8	
전신통(섬유근통 증후군) [†]		증례보고	근이완 약침 등의 복합 한방치료로 호전된 섬유근통 증후군 치료	3	
기타 척추질환 [†]		증례보고	유방암의 척추전이 환자에 대한 천수근 약침, 흉요추 연접부 증후군에 대한 약침 연구	2	

KCD-7 Code	Disease	Study type	Contents	Count
	골다공증 [†]	증례보고	골다공증을 동반한 골반 골절환자의 보존적 치료	1
	류마티스 관절염 [†]	증례보고	약침을 병거탕과 같이 사용하여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1
	족부질환 (슬부 이하)	증례보고	자하거 약침, 봉침요법 등을 이용한 발목관절염좌, 족하수, 족저근막염, 족근관 증후군, 족외과 질환, 당뇨병과 함께 발생한 족부병변 치료에 관한 연구	6
		기타 임상연구		2
	수부질환 (주부 이하) [†]	증례보고	봉약침, 신바로약침 등을 이용한 외측상과염(팔), 손목관절염, 방아쇠 수지, 시상대질환, 듀피트렌 구축, De Quervain's 건조염 치료에 관한 연구	10
N	변비	기타 임상연구	홍화약침의 만성변비에 대한 효능 연구	1
	전립선질환	증례보고	회음혈(會陰穴)의 봉약침 기술, V약침 면역약침의 전립선염(만성)치료에 관한 연구	4
		기타 임상연구	산삼약침, 봉약침 치료가 양성전립선비대증, 전립선암 환자에 미치는 영향	2
	요로	기타 임상연구	홍의약침 단일요법이 여성 하부요로증상에 미치는 임상적 효과	1
	월경곤란	기타 임상연구	자하거 약침의 월경곤란증에 대한 효과 연구	1
	배뇨장애 [†]	증례보고	홍의약침, 자하거(紫河車)약침으로 여성의 배뇨장애, 소변불리(小便不利) 치료	4
	방광염 [†]	증례보고	한약과 봉약침(Sweet BV)으로 만성 재발성 방광염 병행 치료	1
		증례보고	산삼약침을 이용한 가성여성형유방 치료, 유방암의 척추전이 환자에 천수근 약침 치료	2
	유방장애	기타 임상연구	산양삼(山養參) 약침이 유방암절제술 여성의 심박변이도, 맥파전달속도에 미치는 영향	1
		증례보고	약침을 이용한 수화조절법으로 호전된 갱년기 상열감 및 발한과다 치료	1
갱년기 증후군	기타 임상연구	갱년기 여성의 경향통에 대한 홍화 약침 치료의 임상	1	
O	기타	기타 임상연구	산모의 열감(熱感), 한출(汗出), 갈증(渴症)에 자하거 약침이 미치는 효과 연구	1 (0.4%)
R	다한증 [†]	증례보고	V약침 등을 이용하여 서혜부 다한증 치료, 갱년기 상열감 및 발한과다에 약침치료	2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증례보고	봉독약침, 천수근약침, 소염약침으로 CRPS치료에 관한 연구	3
		기타 임상연구	자하거 약침요법이 CRPS 건관절 운동제한에 미치는 효과	1
	피로	기타 임상연구	삼기활력약침의 불면, 피로에 미치는 효과, 수험생의 피로 개선에 관원혈 자하거약침	2
	두통 [†]	증례보고	임발성 두통에 대한 별갑약침의 임상적 효과	1
	수족냉증 [†]	증례보고	합곡, 수삼리 자하거약침요법을 병행한 복합 한방치료의 수부냉증 치료	1
어지럼증 [†]	증례보고	자하거약침요법을 병행한 복합 한방치료의 현훈 치료	1	
T	약물	증례보고	봉약침에 의한 Mycobacterium chelonae 감염, Anaphylaxis에 관한 연구, 산삼약침 기술 후 약인성 간손상에 관한 연구	6
		기타 임상연구	봉독약침 기술 후 발생한 봉독 과민반응, 약침 주입 용량 및 방법에 따른 자극량 연구	2
	화상 [†]	증례보고	약침과 한약의 복합 치료를 이용한 탕화상 환자 치료, V 약침으로 하지부 화상 치료	2
U	화병 [†]	증례보고	MOK 약침을 사용하여 화병을 치료	1 (0.4%)
V	교통사고	증례보고	TA 약침치료로 안전벨트에 의한 흉부통증 치료, 약침으로 교통사고 편타성 손상 치료	2
		기타 임상연구	황련해독탕약침, 봉독약침, 중성어혈약침, 신바로약침, 작약감초탕약침, 소염약침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경향통, 요통 등 치료에 관한 연구	13
기타	기타	증례보고	분리정제봉약침(Essential Bee Venom) 시술환자에 대한 임상적 반응 보고	1
		기타 임상연구	플라세보 약침에 대한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약침 종류에 따른 특기감의 특성에 대한 연구	2

† : Consist of only case reports

IV. 고 찰

약침요법은 기존의 침과 달리 조직에 직접 흡수되도록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한약의 경구 투여에 비해 약물 사용량을 크게 감소시키고 치료효과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³⁾¹⁴⁾. 한국과 중국에서의 약침요법의 출발점은 서로 다르지만 1950~6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침요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1980년대부터 재료가 따라 다양한 약침이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약침요법이 한의학과 중의학의 주요 치료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¹⁵⁾¹⁶⁾.

2018년을 기준으로 기존에 한의약 약침요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어 왔지만, 질병별 약침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별 한의약 약침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약침요법에 관한 한의약 연구동향을 조사하고, KCD-7 대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약침요법의 임상연구들을 질병별로 분석하였다.

총 533편의 연구 중에서 비임상연구는 292편(54.8%), 임상연구는 241편(45.2%)이었다. 전체적인 약침연구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에 일부 증가 후 다시 감소 추세를 돌아섰다. 이는 임상연구와 비임상연구 모두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다만, 문헌연구는 2008년 이후 연평균 4.8개 연구가 발표되었고 그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전면 개정¹⁷⁾되면서 한의계의 생명윤리관련 정책이 확대된 것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되어 진다. 각 한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모두 IRB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임상연구를 진행하여야 했다. 특히 약침의 경우 자가조제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어 IRB에 대한 승인이 타 한의 중재도구 보다 까다로운 점들이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법 개정이후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에 급격하게 연구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IRB 승인과 무관한 문헌연구의 경우 출판 편수의 차이가 연도별로 크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겠다.

총 241편의 임상연구를 KCD-7 대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M코드가 가장 많았다. M코드 내에서는 견비통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추간관 질환이 뒤를 이었다. 이는 실제 임상에서 견관절의 능동운동범위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침과 약침을 복합하여 사용¹⁸⁾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추간관 질환 또한 보존적 치료에서 약침이 다빈도로 사용되고 있는¹⁹⁾²⁰⁾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M코드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질환에 해당하는 G코드가 많았으며 주로 신경마비 및 손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약침요법이 이후통을 동반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²¹⁾, 요골신경마비 증상에 치료효과²²⁾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미루어보았을 때,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경질환에 관련한 약침요법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G코드에서 신경마비 및 손상 질환 다음으로 많은 연구는 중풍에 관한 약침요법 연구였다. 중풍은 한의학에서 오래 전부터 임상경험도 풍부한 분야였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많이 되어왔으므로²³⁾, 최근에 와서도 중풍을 대상으로 한 약침요법 연구 또한 과거의 풍부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증례보고는 기타 임상연구에 비해 연구의 질적 수준이 낮은 연구이므로, 기타 임상연구 없이 증례보고 연구로만 구성되어 있는 J코드와 U코드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연구가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국내 10년 동안의 한의약 약침요법에 관한 연구들의 연구 동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국내 데이터베이스만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약침’과 ‘봉침’이라는 단어만을 검색어어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침’, ‘주사요법’ 등의 ‘약침’이라는 단어로 정립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단어이거나 ‘약침’과 동의어로 사용했던 연구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KCD-7을 활용한 질병코드별로 임상연구의 최근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물실험을 포함한 비임상연구를 질병코드별로 분석하지 않아 임상적 의의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약침요법 관련된 연구가 분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KCD-7의 대분류 코드만을 활용하여 질병이 급성, 만성 여부와 질병의 원인 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겠다.

하지만 약침요법과 관련된 전반적 연구를 정리하였고 질환별 분류를 통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정리된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한의학 치료에서 약침요법이 다빈도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약침의 생산, 시술 과정, 부작용 또는 그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한 매뉴얼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약침요법 응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현재까지 약침요법의 효용성, 적정 용량 및 위험성에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임상현장에서 약침은 자가조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등의 약침요법의 부작용 대처에 필요한 응급약품을 구비하는 부문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 약침연구의 결과를 임상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약침요법을 임상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약침요법을 대상으로 한 국내 한의학 연구 동향과 질환별 임상연구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1. 총 533편의 연구 중에서 비임상연구는 292편(54.8%), 임상연구는 241편(45.2%)이었다. 전체적인 약침연구는 2011년 67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출판되었고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 총 241편의 임상연구 중 M코드 관한 연구가 101편(37.8%)으로 가장 많았고, M코드 관한 연구 중 견비통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추간판 손상이나 탈출증 등의 질환, 요통, 슬관절염, 경항통, 주부이하 수부질환 등의 연구들이 순서로 나타났다.
3. 총 241편의 임상연구 중 G코드 관한 연구가 49편(18.4%)으로 M코드 다음으로 많았고, G코드 관한 연구 중에서는 신경마비 및 손상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중풍, 불면 등의 연구들이 순서로 나타났다.

약침요법에 있어서 다양한 한의약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약침요법이 일정부분 임상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약침요법의 임상적 근거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1.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science committee, pharmacopuncturology institute. Pharmacopuncturology. Second Edition. Seoul : Elsevier Korea, 2011 : 3-5, 9-17, 28-9, 45, 229-41.
2. Nam SC. Meridian I. Shinil Culture History. 1967;7-31.
3. Lee MH, Son IC. Introduction to the Aqua - Acupuncture Therapy and problems. J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998; 15(2):511-518.
4. Park JK, Kim KH. A Survey on Uncovered Service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stitution.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7;21(3):43-50.
5. Lee JY, Han YJ, Kim JH, Kim YJ, Kwon KR. Type analysis of Pharmacopunctur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Pharmacopuncture. Journal of Pharmacopuncture. 2006;9(3):147-54.
6. Baik SI, Ahn JC, Kim YJ, Kim HS, Kwon KR. Type Analysis of Pharmacopuncture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J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06; 23(6):19-27.
7. Kim MK, Seo HR, Ha HJ, O TY, Jeon DH, Li YC, Lee JE, Lee EJ, Oh MS. Systematic Review of Soyeom Pharmacopuncture Therapy for Pain.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7;27(3):95-105.
8. Gu JH, Kim ES, Park YC, Jung IC, Lee EJ. A Systematic Review of Bee Venom Acupuncture for Knee Osteoarthritis.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7;27(3): 47-60.
9. Lee JE, Lee CH, Lee EJ, Lee JM, Oh MS. Systematic Review of Bee Venom Therapy

- for Traumatic Injury.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6;26(3):67-77.
10. Cho DC, Lee JH, Kim CG, Jung WS, Moon SJ, Park TY, Lee JH. Narrative Review of Clinical Trial on Scolopendrid Pharmacopuncture in Korean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3;23(3):73-82.
 11. Lee JH, Jo DC, Moon SJ, Kong JC, Park TY, Ko YS, Song YS, Lee JH. Narrative Review of Clinical Trial on Hominis Placenta Pharmacopuncture in Korean Literature.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2;22(3):79-88.
 12. Kang YJ, Lee IS, Cho HS, Lee SH, Bae GM. The Use Criteria and Appropriateness of Korean Classification of Diseases(KCD) Focused on Emmeniopathy.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2011;24(4):126-149.
 13.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Pharmacopuncture therapy procedure(Ⅱ). Seoul: Korean pharmacopuncture institute. 2000:13-62.
 14.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for Korean Acupuncture Societ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Middle)*. Gyeonggi-do paju: Jibmoondang. 2008:408.
 15. Park BK, Cho JH, Son CG. Randomized Clinical Controlled Trials with Herbal Acupuncture(Pharmacopuncture) in Korea - A Systematic Review. *journals of the Korean Oriental Medical*. 2009;30(5):115-126.
 16. An SU. A reference to the original source of herb-acupuncture in methods. *Journal of pharmacopuncture*. 1997;1(1):87-102.
 17. Lee GE, Kim SH, Kim MS, Oh EG. Knowledge and Attitudes of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Review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7;20(3):287-304.
 18. Kim HJ, Chang SY, Lee EY. Clinical Study on Effect of Herbal acupuncture therapy on shoulder pain. *Journal of Pharmacopuncture*. 2005;8(2):47-52.
 19. Youn YS, Park WS, Ha IH, Lee JS, Shin HD. A Clinical Study on the Effect of Korean Medical Treatments for Patients with Lumbar Disc Herniation.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08;18(1):153-161.
 20. Kim KW, Lee MJ, Jun JY, Lim SJ, Lee CH, Kim HS, Ha IH.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Shinbaro Pharmacopuncture and Bee Venom Pharmacopuncture Treatment of Patient Diagnosed as Cervical Disc Hermiation Based on the MRI after Traffic Accident: A Retrospective, Case Series Observational Study. *J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14;31(1):43-50.
 21. Choi YJ, Kim JH, Yoon KJ, Yeo IH, Lee CK, Lee EY, Roh JD. Comparative Study of BUM Pharmacopuncture and Soyeom Pharmacopuncture on Peripheral Facial Paralysis with Postauricular Pain. *J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2012;29(5):31-37.
 22. Seo JC, Lee YK, Lim SC, Jung TY, Han SW. A Case of Radial Nerve Palsy Treated with Additional Scolopendrae Corpus Herbal-Acupuncture. *Journal of Pharmacopuncture*. 2005;8(2):91-95.
 23. Kim SB. Pharmacopuncture therapy of stroke. *Journal of Pharmacopuncture*. 1997;1(1):126-137.